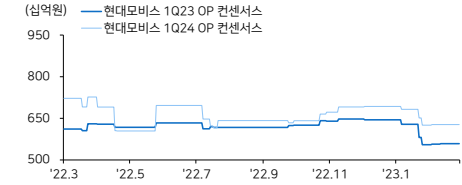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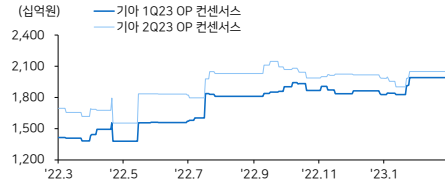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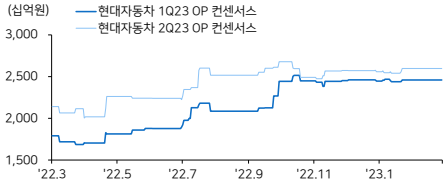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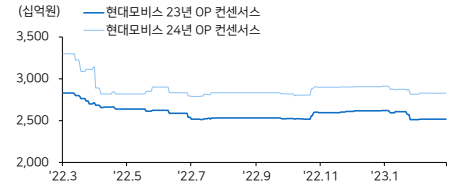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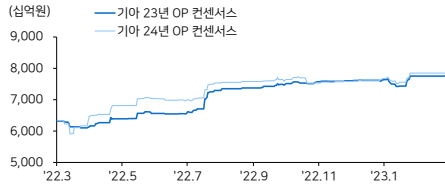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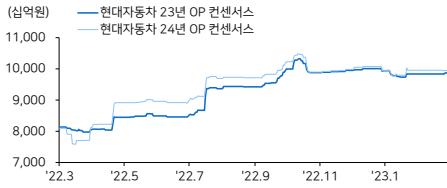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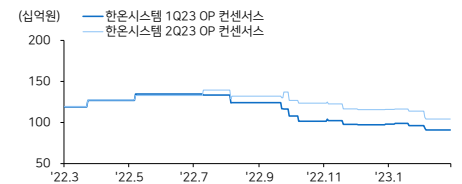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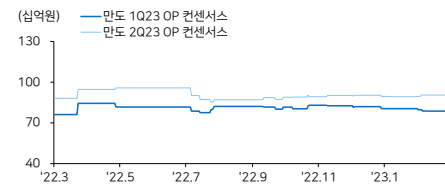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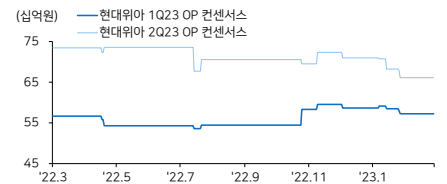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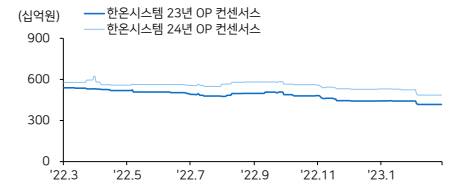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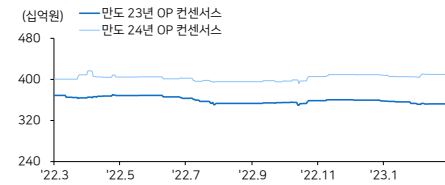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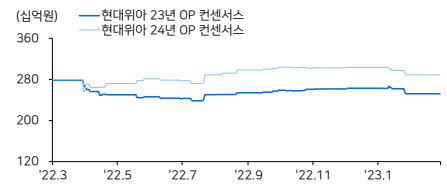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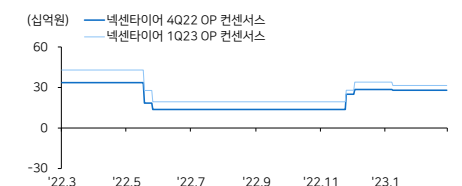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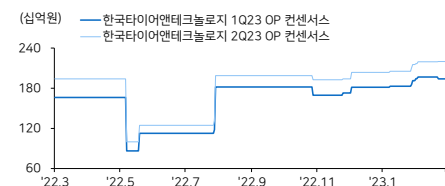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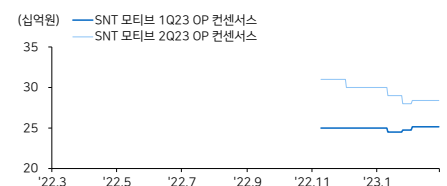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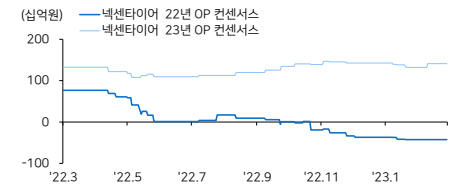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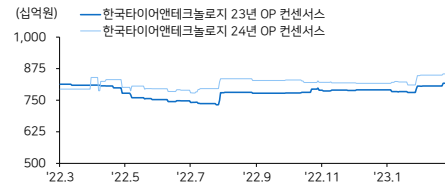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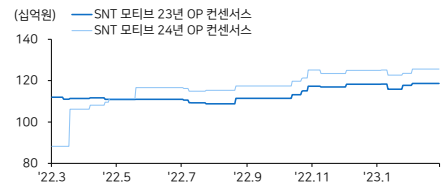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미국에선 '웃고' 유럽에선 '아쉽고' (뉴시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2월 미국 판매량은 12만2,111대로 작년 동기 대비 16.2% 증가. 반면 유럽 시장에선 판매량이 소폭 상승. 지난해 유럽 시장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7만7,375대 기록.
<https://bit.ly/3UNeK8>

내연기관 퇴출 'EU, '이류일'은 봐줬다... "전기차 대세엔 역부족" (뉴스1)

EU 에너지 장관들은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법에 최종 승인, 다만 e-fuel 내연기관차 판매는 2035년 이후에도 가능. 다만, 현재 e-fuel은 휘발유보다 약 4~5배가량 비싼 수준.
<https://bit.ly/3G1XZ0M>

Rivian (RIVN) stock bounces after Q1 delivery data indicates strong results (electrek)

Cox Automotive에 따르면 Rivian은 1분기 8145대를 인도, 컨센서스 7167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상승. 또한 인력 이동, 자본 효율 개선, 생산 속진을 위해 여러가지 비용 절감 조치를 진행 중.
<https://bit.ly/3nuY860>

Ford (F) projects a significant breakthrough with plans to sell its first EVs in this key region (electrek)

포드자동차는 2024년 중동 지역에서 첫 EV 모델 출시를 준비 중. 중동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이스라엘은 이미 BEV 채택률이 10%를 초과하는 등, 중동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과 EV 미래를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
<https://bit.ly/3nwm5uA>

을 것이 왔다...중 전기차 판매 급감에 생산 멈춘 음극재 공장 (머니투데이)

중국 내 6위 음극재 생산 기업 상하이커가 28일부터 생산을 중단. 2022년 기준 음극재 10만7000톤을 출하해 시장점유율 5.7%를 차지하는 기업. 현재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26.3만 위안, 연초 대비 48% 급감.
<https://bit.ly/3KjEB2a>

버스 막았더니 이번엔 중국산 트럭이...BYD, 지리 전기화물차에 체리 승용차까지 (오토데일리)

중국산 소형 전기트럭이 국내시장에 몰려드는 중. BYD 전기버스를 수입하고 있는 GS그룹이 트럭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 자동차 위탁생산에 나서고 있는 명신도 중국 지리자동차 화물밴 수입을 시작.
<https://bit.ly/42So0Pe>

Tesla to expand IT facility, install new automation equipment at Fremont (Teslarati)

테슬라는 IT 건물을 확장하고 프리몬트 생산라인에 신규 MINO 자동차 장비를 설치할 예정. MINO는 자동차 산업에 지능형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국 기반 회사. Tesla는 수년 동안 MINO 장비를 사용해 왔음.
<https://bit.ly/3IV3nwk>

BYD downplays China price war Impact after Q4 profit jumps (Reuters)

BYD는 4Q22 실적발표 이후 중국 내 자동차 가격 경쟁과 수요 우려 영향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언급. 또한 1Q23 인도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나, 2022년 200%의 증가율보다는 낮은 성장 속도.
<https://reut.rs/3KgQqW5>